

건강 칼럼

‘인공관절’ 수술 후, 무릎 소리 잘못된 건 아닐까?

“음 직일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데, 혹시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니죠?”

무릎 인공관절수술은 작은 수술이 아니다.

피부를 절개하고 닳아서 울퉁불퉁해진 관절 단면을 다듬고, 뼈를 자르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이다. 그렇다 보니 수술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통증과 부종이 생기기 쉽고, 무릎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회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다.

수술 후 열심히 재활운동을 하면서 3~4개월쯤 지나면 초기에 발생했던 증상들은 대부분 사라진다. 대신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데 괜찮은 거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3~4개월부터 소리가 나는 증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통증과 부종 등 다른 증상이 더 크게 느껴져 미처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수술 직후 증상들이 사라지고,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무릎에서 나는 소리에 신경이 쓰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릎에서 소리가



남 창현

힘찬병원 관절클리닉 원장

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릎은 움직이는 뼈로 구성돼 있으며, 구부러졌다 폈다 하면 무릎 앞쪽 슬개골이 위아래, 좌우로 조금 움직인다. 이때 연골이 건강하면 완충역할을 해주면서 소리가 나지 않으며, 관절염이 심해 연골이 많이 닳은 경우 모래 같리는 소리, 자갈밭에서 굴러가는 소리 등 다양한 소리가 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무릎인공관절 수술 후 관절선이 변화한 경우이다. 연골관이 손상되고 염증이 있을 때는 관절선이 매끄럽지 않아 다듬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관절선이 위로 솟 올라갈 수 있다. 이처럼 관절선 위치가 바뀌면 소

리가 나기도 한다.

힘찬병원 관절의학연구소에서 무릎 인공관절수술을 한 환자 529명을 대상으로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적이 있다. 소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알아보기 위해 최소 2년 이상 경과를 관찰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소리가 나는 환자는 총 40명, 전체 약 8.0% 수준으로 이중 중 41명은 통증 없이 소리만 나는 경우다. 소리와 통증이 있는 환자는 5명에 해당했다.

통증 없이 소리만 나는 경우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별도 특별한 치료 없이도 저절로 호전된다. 반면 소리와 통증이 동

반 경우에는 삽입물의 회전력 문제, 관절선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교정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자체 관절의학연구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리와 통증이 동반된 경우도 약 5~6개월 뒤에는 특별한 치료없이 저절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움직일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 신경이 쓰이는 것은 당연하다. 수술이 잘못돼 소리가 난다면 별도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또한 요즘에는 로봇을 이용해 더 정밀하고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이 잘못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수술이 잘 되고,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은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니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쪼그려 앉는 것과 같은 잘못된 생활습관을 교정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체중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체중을 줄이면 무릎에 가해지는 체중부하가 줄어 소리가 덜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

인천 세계 3대 공항

인천공항이 세계 3대 공항으로 도약하고 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이 ‘제2여객터미널 확장 공사(4단계 사업)’를 통해 ‘메가 허브공항 시대’를 연다는 포부를 밝혔다.

1996년 첫 삽을 뜬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후 2008년까지 탑승동 공사를 마치고 2018년 1월, 2터미널을 열었다. 4단계 사업은 2019년 착공을 시작해 제4활주로를 설치하고 여객터미널을 확장하는 공사다.

제1, 제2 여객터미널의 연간 여객 처리 규모는 현재 연간 770만 명에서 1억 600만 명으로 늘어난다.

동북아 1위 허브 공항을 뛰어넘어 홍콩(1억 2000만 명), 두바이(1억 1500만 명) 공항에 이어 세계 3대 초대형 공항으로 도약하게 된다.

여객 이용객들에게 가장 좋은 점은 일단 운항횟수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시간당 운항 가능 횟수가 기

존 90회에서 107회로 증가한다. 여객 주기장(비행기 주차장)도 163개소에서 225개소로 늘어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결합이 끝나면 현재 1터미널을 사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들도 2터미널로 이전한다. 2터미널 확장 공사는 ‘글로벌 아트허브’를 지향하고 있다.

기존 터미널과 다르게 ‘중앙정원’도 도입했다. 환승객의 경우 최장 20여 시간을 실내 공기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나온 아이디어다. 특히 외항사가 주로 쓰는 동편에는 축구장 3분의 1 면적으로 전통 정자 정원을 설치했다.

이곳 정원은 창덕궁에서도 가장 아름답다고 꼽히는 ‘승학정’(勝在亭)을 3D 스캔을 통해 구현했다. 서편에는 잔디정원이 들어선다. 이번 공사는 약 30년간의 노하우를 쏟아부은 가장 역점적인 사업이다.

은행 주담대 금리

한국은행이 3년여의 통화 긴축을 끝내고 기준 금리를 0.25%p 내렸다.

그러나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주담대 금리는 일주일 새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20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0월 18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4.15~5.72% 수준이다. 한은이 기준 금리를 인하한 지난 10월 11일 연 3.99~5.78%과 비교하면 일주일 새 하단이 0.16%p 높아졌다.

기준 금리가 내렸는데도 주담대 금리가 오른 것은 시장 금리 하락이 대출 금리에 일정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요구도 대출 금리의 주요 변수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지난 7월부터 가산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출 금리를 끌어올렸다.

기준 금리가 인하되긴 했지만

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당분간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출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은행들은 2022년까지만 해도 기준 금리 조정에 맞춰 예금 금리를 즉각 조정했으나, 최근에는 금리 조정을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가.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19일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는 연 3.35%~3.45% 수준으로 1주일 전과 변화가 없었다.

대출 금리는 내리지 않으면서 예금 금리만 인하여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은행들이 이미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금 금리를 낮춰놓은 영향도 있다.

한은 기준금리 인하 직후 기준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기준 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대금리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영국 큐가든서 펼쳐지는 조명 분수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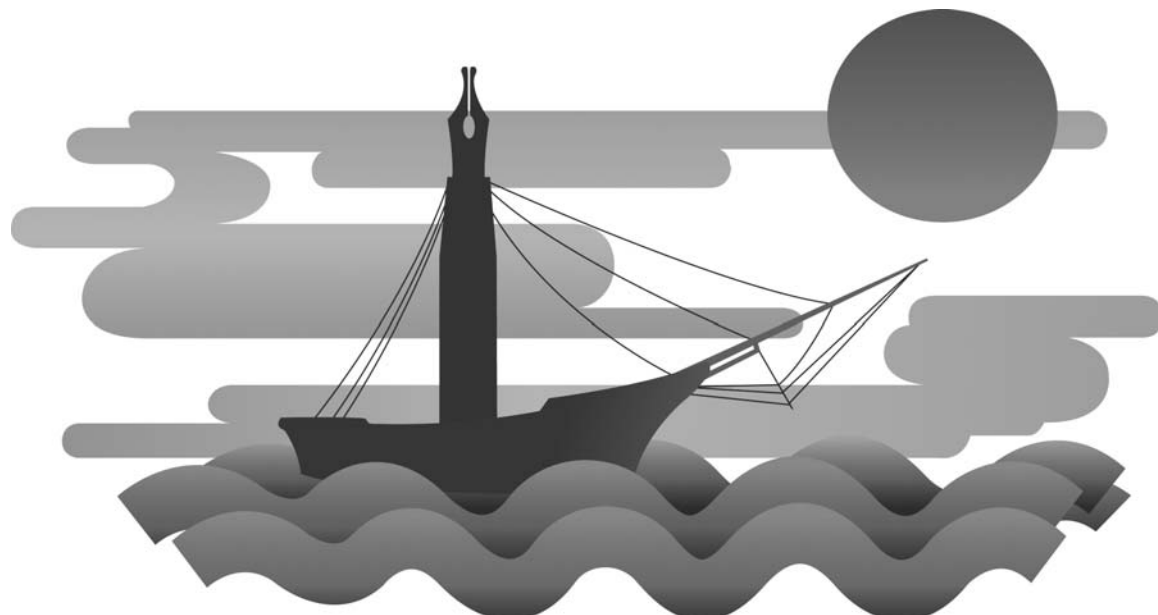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왕립식물원 큐가든에 올해로 12번째 ‘크리스마스 조명 트레일’이 조성돼 종려나무 온실 앞에 호수에서 화려한 분수쇼가 펼쳐지고 있다. 이 조명로는 13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공개되며, 방문객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큐가든의 아름다운 경관 속에 설치된 화려한 조명과 설치 미술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산타클로스를 만날 기회도 제공된다.

“옷도 그냥 버리면 환경 파괴”



12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한 소년이 환경 의식 고취를 위해 광장에 쌓아둔 의류 더미를 구경하고 있다. 이 행사는 의류 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알리고, 더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섬유 폐기물 대부분이 매립지로 향하고 있어 환경 파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체코 정부는 2025년부터 섬유 폐기를 수거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